

## <제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제7차 정기총회 회의록>

- “진실되게, 끝까지 겪어내겠다.”

### ㉠ 2022년 1월 23일 오후2시 개최

\*총회 의결 권한 위임 : 135명 (권리당원 265명)

\*참석 : 현장 23명 / 온라인 9명

(강민수, 김명완, 김상애, 김선, 김순애, 김연희, 김창대, 노민규, 박은서, 반디, 부순정, 신현정, 안재홍, 양인숙, 오안자, 이건웅, 이선자, 이성홍, 이승민, 진수은, 최선경, 한은정, 현성미 / 김미성, 민영, 신은순, 오혜찬, 은종복, 이미리, 이상영, 이진희, 최정애)

### 1. 개회(14:10)

- 총회의장: 안재홍

- 서기: 박은서

① 녹색당 평등문화약속문 낭독

② 안건 (21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 전원 동의 - 위임 134명 + 참석 30명 (현장 20명, 온라인 10명)

③ 공동운영위원장 안재홍

(ㄱ) 1/22 전국운영위 결정사항 전달

전국녹색당, 제주녹색당의 전체 기탁금 지원 결정.

제주가 전국의 희망이다. 제주에서 희망을 만드는 일에 결기와 책임감을 갖자.

(ㄴ) 지난 제주 선거와 2022제주 선거구도 분석

제녹당 최저 득표율은 1.0% 선이다. 우리는 다시 출발선에 섰다.

도지사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개발’의 손을 들어주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2022 지방선거에 있어 제녹당의 목표는 ‘의회 개혁’이다.

제녹당 도지사 후보는 제녹당 정당지지율을 높여 비례후보를 도의회에 진출시킬 힘이다.

기후위기 피해주민에 선제 대응하고 민주주의 위기에 놓인 제주의 희망은 제녹당이다.

“제주에서는 녹색당” - 녹색당의 제도정치 출발점으로서 제주는 유의미하다.

④ 제주도지사 후보 부순정

: 불사르겠다. ‘정당인’으로서, 2022 선거를 우리는 어떻게 맞을 것인가. 선거는, 지금까지 제녹당이 말했던 것을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기후위기 당사자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40~50대 재산을 가진 중년남성도 아니고 기존정치인도 아닌, 생활인, 가장 보통 사람, 여성으로서 제주에서 도지사 후보로 나선 사람이다. 저는 소수자를 대변하는 녹색당의 청년, 청소년, 여성이 제주 정치 무대에 서게 할 힘이 되고 싶다. 도의회에서 녹색당의 목소리를 내는 녹색정치인을 꼭 만들고 싶다. 제주 정치판에서 진보의 힘을 합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를 듣는다. 동의할 수 없었다. 녹색당의 목소리는, 녹색당의 정책은 다르다. 오히려 녹색당에게 있어 이 선거는 다른 목소리, 다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부족한 점이 많고 흔들린 적도 있지만, 저는 달라지고 나아갈 것이다. 당원 분들의 기대를 책임감 있게 받아가겠다. 제녹당에서 부순정이 어떻게 쓰였을 때 긍정적일 것인가를

고민한다. 당의 기대를 메시지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녹색당에 누가 되지 않게, 진실되게, 끝까지 겪어내겠다.

⑤ 정화빈

: 불사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후보의 일을 나누고 함께 든든하게 버텨주면 좋겠다.

## ㉔ 안건1 :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전원동의로 원안 확정

### 1. 2022 총회 준비 경과 보고

- ① 12/8 별도 총준위체계를 꾸리지 않고,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준비체계로 전환 결의
- ② 12/28 총회 일정 확정, 준비 사항 점검, 사업 계획 평가 초안 제출 결의
- ③ 1/16 평가 내용 최종점검, 2022 선거전략 초안과 선대본 구성 검토, 결산 및 예산 검토
- ④ 1/17~1/22 총회 참여 독려 및 위임 요청 전화

### 2. 2021 6대 목표 평가

- ① 조직위원회 : 2022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의제모임이었던 조직팀을 상설위원회인 조직위원회로 변화를 주었으나 구성원들의 활동력을 충분히 갖출 수 없는 상황이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당원들의 참여도 어려웠다.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으나 계획했던 사업들(조직위와 정책위 협력, 제녹당의 날, 신입당원교육, 제녹당 사용설명서 등) 책임감 있게 실행.
- ② 정책위원회 : 2022 지선용 핵심정책 중 '에너지와 기후위기', '농업과 농촌(특히 농업의 제모임 활성화)' 분야의 기본 정책 생산, '도시과 교통' 정책은 세부사항 정리 중, '경제와 청년' 정책은 생산 못함. 정책위 회의 꾸준히 개최. 제주사회가 내놓지 못하는 대안적 관점 제시. 채식급식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활동, 의원발의를 통해 2022 상반기 중 제정 예정.
- ③ 2022 지방선거 대책 선거본부 구성  
: 2021 7월, 당원 토론회 2회 진행, 선거 전략 방향 확정 / 11월, 도지사 출마 전략 채택 / 11~12월, 선본 준비모임 5회, 당원간담회 6회, 후보 확정(61.42% 투표율, 96.95% 찬성)  
- 전반적으로 침체된 당 분위기에서 더 많은 당원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으나 운영위에서 책임 갖고 당원을 방문, 간담회 개최, 당원들의 지지 입장을 확인함.
- ④ 제주녹색당원 모임 공간 마련 : 녹색페인트 - 당사로서 기능보다 회의 공간으로 기능
- ⑤ 당원 소통 활성화 : 제주녹색당 홈페이지에 당원게시판(당원들로 자격 제한)을 개설하였으나 개인정보이용관련 문제로 중단. 당원들이 운영하는 가게 지도 제작, 배포.
- ⑥ 지역 청년들과 청년녹색당 활동 공유 및 연대 활동 : 제주청년녹색당 - SNS(인스타그램 @younggreens.jeju) 2개월 운영, 2022 활용되길 희망 / '녹색당원이 된 청년들' 지역간담회 진행 등 신현정 대표가 전국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전국 청년녹색당 사업에 꾸준히 참여. 제주지역 대학 중심 조직사업 필요 제기됨.

### 3. 2021 일상 활동 정리 및 평가

- ① 당원 관리 : 탈당 당원이 입당 당원보다 많았다. 경제적 이유가 다수. - '당비'는 고민해야 할 과제, 안전장치 필요하다(이선자). 서류 상 이유일 가능성 있다. CMS 정지, 휴대폰결제 등 방법을 확인하고 공지할 필요가 있다(한은정, 김순애, 김명완, 안재홍).

- ② 당원 소모임 현황 : 2021 성실히 진행된 ‘페미올레 담쟁이’ 활동종료. ‘녹녹한 책임기’ 부활 꾸준히 진행. 논평팀은 당 운영위와 유기적 소통 어려움으로 해체. 보행권 의제모임은 다양한 활동 모색, 김창대당원과 함께하는 소모임으로 변경, 활동 진행.
- ③ 연대활동 :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대 전환 연대회의’, ‘채식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를 핵심 연대사업으로 정리. ‘제주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GMO반대 제주행동’, ‘제주민중연대’ 등 연대활동.
- ④ 논평 발간 : 총 32편 발간, 제2공항 관련 논평이 가장 많았음. 제2공항(8) > 난개발/도의회(6) > 교통, 인권, 비자림로, 기타(3) > 동물테마파크(2) > 농업, 노동, 평화, 물(1) 주제 순.
- ⑤ 5회 기자회견 및 현안 활동

#### 4. 2021 결산보고 (회계담당:한은정)

- ① 수입 : 예산 대비 결산 비율 103% - 12월 수익사업(굴 판매) 초과달성
- ② 지출 : 예산 대비 결산 비율 79% - 조직위, 청녹당 지원금 지출 42~43%

\*2021년 제주녹색당 사업 및 재정 감사보고서 : 하승우

### 3] 안건2 : 2022년 사업계획(안) 전원동의로 원안확정

#### 1. 제주녹색당 2022 지방선거전략초안

- ① 의미 : 2018년 선거 당시 도민들의 지지를 2022년 ‘의회 진입’ 결과로 만드는 선거 - 기후위기 최전선 제주에 기후위기 대처 정책 부재. 도지사 권한이 막강하고 도의회는 책임을 방기한 제주는 민주주의 위기 지역이기도 하다. 2022 지방선거는 제주와 도민을 보살피고 의회 개혁을 통해 민주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② 구도 : 개발 위주 거대 양당 VS 의회 내 세력을 확장하려는 진보정당
- ③ 제주녹색당의 2022 지방선거 목표  
: 2030년 탈탄소 제주를 향한 로드맵 마련  
선거를 통해 등장한 당원들이 활동당원과 의제모임으로 녹색당 활동을 지속하도록 한다. 제녹당을 지지하는 비당원 지지세력을 확대하고 조직화한다.  
제주에서 녹색당의 유의미한 지지율 확보, 도의원 1명 이상 당선
- ④ 제주녹색당 : 여성들 중심, 개발현장 반대활동을 진심으로 해온 정당.  
기후위기 당사자 청년과 여성 후보. 제주를 살리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이자 정당.  
돈과 조직이 취약. ‘환경’이라는 단어가 혼용된 현재, 선거기간 차별화 전략 필요.  
SNS 활용 등 저비용 고효과 선거방식 필요. 후보들의 진정성이 돋보이는 전략 필요.  
진보정당들의 도의회 입성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전략 수립 필요.
- ⑤ 제주 이슈와 타겟층 분석(전국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장 이건웅)  
(-) 제주 이슈  
: 4.3 관련 내용 - 배보상, 진실규명, 미군정 책임 문제  
코로나 백신 접종 및 거리두기 - 누가 가장 피해를 입는가, 분석 필요.

환경, 개발, 제2공항 - 공항 확충 vs 관광객 더 늘려선 안 된다 / 환경보전기여금 용도  
신재생에너지 - 출력제한, 대형 풍력발전 문제, 소형 공동체재생에너지 방안  
JDC - JDC 소유 토지를 청년농부에게 무상임대하는 토지관리센터, 제주기후대응센터  
지하수 - 제주 물관리의 공공성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

농업 농지 - 농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농지 전용 금지, 기후위기 대응 농업

(ㄴ) 제주 지방선거 타겟층 : 첫 투표자, 청소년

- 18~20세 연령층 득표 20%(4,190표) 목표, 30%(6,285표) 득표 가능
- 그들을 위한 선거 캠페인(청소년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에 대한 학교 정치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청소년 정치 공부모임 구성, 고3들이 바라는 정치 설문조사)
- 2018년과 달라진 지형(청소년들의 보수화)을 고려한 구체적인 전술 필요
- 타 정당들도 첫 투표 세대들에 주목할 것, 차별성 있는 전술 필요.

(ㄷ) 2018년 후보 지역 & 우호 지역(표선, 조천, 성산읍) 1,337 득표

→ 2022년 2,902표 목표 / 3,819표 가능

⑥ 2022 제주녹색당 지방선거 홍보전략 제안 (전국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현정)

(ㄱ) 2018 다득표구 분석

: 주거단지, 아파트 거주자 많은 동네, 학교 밀집지역 - 미래세대, 교육 이슈 관심

각종 관공서나 법원, 검찰, 시청 등과 한 살림, 아이쿱 매장 위치

주차난, 녹지 등 문제를 겪고 있고 서귀포 지역은 대체로 의제를 따르는 경향 있음.

(ㄴ) 녹색당 지지 집단 분석

: 청소년 (2018 YMCA청소년모의투표 결과 17.5%가 제주녹색당 후보에게 투표), 여성(20대, 50~60대), 소수자 인권 옹호자, 학부모, 플로깅 인구, 채식 인구, 반려동물 부양 인구 - 더 선명한 지역의제, 탈탄소, 환경, 기후위기 의제, 미래세대를 위한 더 뚜렷한 정책 필요

(ㄷ) 녹색 선거운동(Full Green Camp) 제안 : 현수막 없는 선거, 재사용 자전거 유세차량, 미디어 활용 선거, 태양광사무실, 언플러그드 유세단 제안 - “홍보는 소통인 동시에 조직”

(ㄹ) <시사인> 기후위기 리포트에 의하면, 지지 정당이 달라도 2022 선거가 기후대선임에 38.8% 유권자가 공감했다. 녹색당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도의회 1석을 확보하자.

⑦ 선거에 대한 의견들

(ㄱ) 안재홍 :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좋다. 제주녹색당의 홍보전파자가 되자.

(ㄴ) 김명완 : 타겟층 중 농촌 어르신들께 녹색당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기존정당과 다른 점을 포인트 삼고, 녹색당 만의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ㄷ) 이승민 : 현수막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고려한 디자인이면 어떨까. SNS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플랭카드를 좋은 홍보 수단이다.

(ㄹ) 김상애 : ‘미래세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여성, 청년, 청소년, 소수자에 관한 녹색당 만의 선명한 정책이 필요하다.

(ㅎ) 진수는 : 친환경선거에 대한 언어화와 타겟층, 부동산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SNS와 매체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물 선거전략이 있어야 한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선거 방식을 고민하자.

⑧ 선거 예산

(ㄱ) 최소 115,000,000원 지출 예상 : 전국당 지원 후보기탁금 전액 56,000,000원 포함

(ㄴ) 제주 자체 모금 59,000,000원 필요 : 후보 후원회

(ㄷ) 모금기획팀 : 이성홍, 한은정, 김순애, 김선, 현성미 - 우리에게 너무 멋진 후보들이 있다. 선거는, 돈이라더라. 녹색당과 녹색당 후보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내는 기회다. 끝까지 옆에서 같이 한다는 마음이다. 열심히 하겠다(선대본 모금기획팀장 이성홍).

⑨ 2022년 사업계획안 승인 : 전원 동의 - 위임 134명+참석 26명(현장 22명, 온라인 4명)

**4] 안건3 2022년 예산(안) (회계:한은정) 전원 동의(위임134명+참석26명)**

① 수입 : 이월금 10,786,832원과 정기당비 20,000,000원 포함 총 33,786,832원

② 지출 : 33,786,832원(원안에서 (도지사후보활동비 월20만원→월30만원 수정 후 예비비 50만원 축소안으로 참가자 전원동의)

**5] 기타 논의 : 규약개정(제6조 8항 추천제 운영위원의 건-세부운영사항은 운영위에서 결정)안이 21명의 참가자 중 14명의 동의로 변경됨**

① 이성홍 : 총회 중 제안된 선거 전략은 확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 먼저, 선본 협의 필요하다(안재홍).

② 제주녹색당 규약 중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을 변경하는 개정안 제안(안재홍) : '선출직 운영위원 10인 이내' 조항을 '선출직 운영위원 5인 이내, 추천직 운영위원 5인 이내'로 변경 제안. 당내 의사결정을 더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주주의 보안을 위한 실험을 시도해보자. 지금 개정되면 다음 총회 때 적용된다.

- 이성홍 : 동의. 선거를 통해 보다 많은 당원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고 만들자.

- 신현정 : 찬성. 추천직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당원들이 선거 과정을 지켜본 이후, 운영위에 들어와 새로운 힘이 되면 좋겠다.

- 김순애 : 7월에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 첫 추천직위원 임기에 단서 규정을 두자.

- 부순정 : 추천제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면 좋겠다. 당원들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과 더 많은 당원들 의견 부탁드린다.

- 진수은 : 추천직 운영위원을 3~4인으로 조정하는 건 어떤가.

- 이건웅 : 추천제 동의. 3~4인이면 좋겠다.

- 현성미 : 운영위 수가 늘어나면 좋겠다. 선출직 10인 이내, 추천직 5인 이내가 좋겠다. 5인 이내라 함은 0~5인. 1번을 수정하지 않고 8번을 추천직 5인 이내로 추가하면 좋겠다.

- 김상애 : 8번 추가 경우, 성비, 연령비에 따른 할당제 궁금하다. → 전국당 규정 있다.

- 김창대 : 소수자 비율도 들어가는가. 녹색당의 경제적 사정 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소수자 인권 보장을 지향하는 당이다. 장애인에 대한 당 차원의 배려 필요하다. → 뼈아픈 말씀이다. 녹색당의 장애인 특례 조항이 있다. 세부 규정 만들 때 꼭 장애인 비율 조항을 반영하겠다.

(ㄱ) 운영위원 구성 조항 개정에 대해 동의 - 17명 찬성, 4명 기권, 0명 반대(온라인3명기권)

(ㄴ) 운영위원 구성 개정 2안(선출직10인이내+추천직5인이내)에 14명 동의, 승인.

(1안(선출직5인이내+추첨직5인이내) 5명 동의 / 기권 2명)

(ㄷ) 세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하는 것에 동의

**㉔ 선거대책본부 구성안 <선거대책본부장 : 안재홍 / 박미영> 참가자 전원동의**

선거사무장	김순애	조직	김선
회계책임자	양인숙	모금기획	이성홍
대변인	김순애	정책	노민규, 이선자 / 하승우
기획	신현정	수행	이건웅
홍보	강민수	선기기록관리	김영란
유세	현성미	후원회장	

- 지방선거 이후 임시총회를 통해 신규운영위원 선임 및 하반기 사업 계획 승인 진행